**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

**정지영 감독 선정!**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한국영화공로상(Korean Cinema Award) 수상자로 정지영 감독을 선정했다. 한국영화공로상은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9월 17일에 열리는 개막식에서 시상을 진행한다.**

**진실을 향한 끈질긴 시선, 명실상부 한국 영화계 거장**

****

[사진제공 아우라픽처스]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한 정지영 감독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들을 통해 관객과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남부군>(1990), <하얀 전쟁>(1992),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4), <부러진 화살>(2011), <남영동1985>(2012), <블랙머니>(2019), <소년들>(2020) 등 사회적 갈등, 인권, 정의를 향한 묵직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한국영화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사진제공 아우라픽처스]

정지영 감독은 영화감독으로서의 활동을 넘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영화계의 발전과 후배 영화인 양성에 기여해왔다. 또한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영화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힘써오며, 한국영화의 권익과 다양성 수호에 앞장서 왔다.

부산국제영화제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정지영 감독은 오랜 세월 뛰어난 영화감독이었고, 현재에도 최고령 현역 감독으로 신작을 준비중이다. 무엇보다 그의 생애와 영화에는 한국의 역사와 영화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 많은 한국영화인들의 귀감이 되어 온 정지영 감독에게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공로상을 헌사한다” 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정지영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영화 암흑기와 황금기를 모두 거쳐 다시 위기에 처한 2025년 오늘까지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상은 그 세월을 함께해 온 영화계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 저세상으로 떠난 제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9월 17일(수)부터 9월 26일(금)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 정지영 ㅣ 한국 ㅣ 감독

충청북도 청주 출생인 정지영 감독은 1976년 김수용 감독 조감독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작품으로 풀어내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비롯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백상예술대상, 황금촬영상영화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런던아시아영화제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감독상과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나아가 제주 4∙3 사건을 다룬 신작 <내 이름은>을 제작 및 연출하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 9월 17일(수) - 9월 26일(금)

▶ 제20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9월 20일(토) - 9월 23일(화)